

욕망과 원한

—소설과 아이러니—

이 일 화
(국민대, 조교수)

인간의 역사는 해석의 역사라는 말을 필자는 늘 해왔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인간의 역사는 욕망의 역사를 나타난다. 이 또한 늘 필자의 논지이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금의 미국시를 다룬 필자의 석사논문『비자아를 향하여 Toward the Non-Self』의 주논지는 인간이란 자기자신을 뛰어넘은 또는 자기자신과는 다른 그 누구 또는 그 무엇을 향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이러한 욕망의 거대한 체계로서 이해하지만, 정통 종교가 정신적인 지주로서 무너져 버린 이후의 상태에서 탄생하는 그 어떤 문학도 그 욕망을 늘 드러내준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이는 다 제나름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었다. 「문학의 정치적 의미」라는 글에서 필자는 <형이상학적 욕망>과 <형이상학적 변민>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인간이란 늘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수렴했을 때 대단히 현실적인 성격을 띤 것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 사실 그 욕망은 늘 끝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욕망이며, 문학은 그 어떤 양식보다 그 욕망이 형이상학적 욕망임을 잘 드러내 준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였다. 변민은 욕망이 심화되었을 때 또는 현실과 갈등을 심하게 겪을 때의 상태인 것이다.

필자는 또 다른 글 「문학가의 자기초상」의 끝부분에서 니체의 <힘에의 지향>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이 필자의 욕망 개념과 상응하는 것임을 밝혔었다. 그리고 욕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여러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원한——니체의 *ressentiment*——개념은 그 반응을 설명하는 훌륭한 척도인 것도 말하였다.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역사에서 지금껏 되풀이되는 한풀이라는 관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문학——특히 소설——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응들 중의 하나인 것이니, 즉 소설의 세계는 욕망과 현실의 상충에서 생겨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세계가 욕망의 세계이고 욕망에 의해 인간의 현실 세계가 이끌어지는 것이면서도 그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형이상학적 욕망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욕망이라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에 대한 인식이 루카치와 그의 군소 리얼리스트들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욕망과 즐거움사이』는 이 아이러니를 차라리 즐거움으로 뛰어넘어 보고자 한 시도이지만,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그 어떤 뛰어넘음도 허락되지 않은 강혀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 필자의 이중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욕망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해가면서 소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추적해 보기로 하자. 이언 와트가 밝혔듯이, 소설의 생성은 개인주의의 확장과 일개인에 두어지는 중첩과 연관이 있고, 루카치 역시 소설에 있어 일개인의 주인공 역할을 언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일개인의 욕망에 있어, 이 형이상학적 욕망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 보여 주듯 대체적으로 중간자를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킨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구체적인 다른 인물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그 중간자는 나폴레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아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다. 또는 그 중간자는 구체적이긴 하나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허구적인 존재——가령 흥길동이거나 춘향이 같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개인의 형이상학적 욕망은 일단 그 중간자를 향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떤 성인(聖人)처럼 되고 싶거나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어하거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거나 또는 흥길동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이러한 모습은 매우 극명하게 그리고 매우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다른 얘기 같지만, 제일 효과적인 광고 방법은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광고 방법은, 어떤 다른 이들이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씀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이 따를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간의 사랑을 자극하는 한가지 현저한 방법은 무관심한 척하거나 또는 당신이 외의 다른 이들이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요부기 있는 여인들——인간 욕망의 성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물론 그 중간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간자가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또한 더불어 원한의 모습도 격렬해진다. 어느 나라 소설에서도 대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설에서 그 욕망과 원한의 모습은 흔히 돈과 섹스라는 두 가지 주요 인간사와 얹혀 드러난다. 김 동인의 「감자」, 나 도향의 「물레방아」는 그 대표적 예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흄을 가진 인간상, 따라서 욕망을 제대로 풀어보지조차 못하는, 원한에 사무친 인간상이 또한 우리의 많은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데, 가령 현 진전의 「B 숨监과 러브레터」, 나 도향의 「벙어리三龍이」, 계 용묵의 「白痴 아다다」는 그 예들인 것이다. 물론 돈과 섹스와는 다른, 이례을 로기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인간사가 바탕이 된 욕망과 원한의 모습도 있다. 황 순원의 『카인의 後裔』는 그 좋은 예일 것이다.(황 순원의 첫 단편집(1940)은 욕망이 좌절된 인간상들로 들어차 있다.) 그리고 욕망과 원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가능성을 탐색한 본 작품도 있으니, 김 동인의 「狂畫師」와 「狂炎소나타」는 그 탁월한 예들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원한이 욕망으로부터 생겨나오며, 따라서 원한의 이면에는 늘 매력당했음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복녀, 방원과 그의 계집, B사감, 벙어리 삼룡이, 수룡이와 아다다, 도섭영감 등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들의 원한 이면에는 남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들, 돈있는 이들, 권세있는 이들——말하자면, 〈주인 master〉——에 대한 매력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황 순원의 글이 그 전세대의 작가들의 글에 비해 달라진 것은, 그 전세대의 작가들의 글에서는 원한의 인물들이 그대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반면 그의 글에서는 원한의 대상자인 주인, 즉 중간자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전세대의 작가들의 글에서는 혼이 주인공이 아니라 도섭 영감이나 아니면 적어도 오작녀가 주인공이 되기 쉬울 것이었다. 이는 황 순원의 글이 보다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하고 있다는 말도 된다. 『人間接木』에서도 주인공은 짱구대가리나 배소년이나 백석이가 아니라 종호였다. 물론 종호는 〈주인〉적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황 순원의 글에서는 내용상의 주인공과는 또다른 보다 객관적인 눈을 지닌 형식상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황순원의 큰 특징이라 하겠다.(전세대의 작가들중 김동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황순원이 도섭 영감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주인 master>과 <하인 slave>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인의 원한의 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는 도섭 영감은 주인집으로부터 신임을 받던 인물이고, 삼룡이는 주인집 도령으로부터 학대를 받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룡이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도섭 영감의 경우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터이다. 물론 상황의 변모에 맞춰 도섭 영감이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려했다고 말해버리면 그만이다.(그리고 사실 작가도 독자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욕망의 성격이다. 주인집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도섭 영감과 주인집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삼룡이가 보여주는 원한의 두 양상은 궁극적으로 욕망의 산물이며, 주인과 하인의 현실적인(또는 물체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겨날 수 있는 양상인 것이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관찰이 생겨난다. 도섭 영감과 삼룡이는 각각 새디스트와 매조키스트의 한 전형적인 예로 나타나는 것이다. 새디즘은 욕망과 원한을 능동적으로 풀어보려는, 폭력에 의거하여 자신이 중간자(또는 주인)의 위치에서 보고자 하는 시도이며, 매조키즘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풀어보려는, 자신이 중간자에 매달린 하인이 전적으로 되어 버리려는——구속됨으로써 자유를 찾고자 하는——시도인 것이다. 물론 삼룡이가 주인집에 불을 놓고는 있지만, 이는 결코 자신이 주인의 위치로 오르기 위함이 아니다. 그가 새색씨의 품에 안겨 불에 타 죽은 것은 역시 매조키스트의 모습인 것이다. 아마도 흔히 인식되듯 매조키즘이 사랑의 변태적 양태가 아니라 사랑이 매조키즘의 변형일지도 모른다.(독자들이여, 너무 폭탄적 선언인가?) 사실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매조키즘의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지 아니한가.

위의 소설들의 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형이상학적 욕망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불행 의식과 원한의 심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백팔 번뇌란 결국 욕망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 다음엔 그 무엇이랴? 도사나 불타나 다 욕망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닌 다음엔 그 무엇이랴? 진정한 도사나 불타라면 모르되 술이나 마약, 금욕주의, 또는 극단적인 방종으로도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때 히피족이나 비트족 또는 고행자족이 이런 제스처를 취해 보기는 했지만, 이는 <자기기만 mauvaise fois>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도사나 불타가 되어 버린다면, 인간의 역사란 도대체 무엇이 되어 버릴까? 이런 점에서 염상섭의 『三代』란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이란 욕망——이 존재론적 병(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의 역사란 욕망의 대물림인 까닭이다.

사랑에도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 질투와 허영 그리고 속물 근성이라는 욕망의 산물들에 진정으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 있을까? 설사 그것이 있다해도, 그것은 이 세계내(內)에 존재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있다해도, 그것은 이 욕망의 세계를 견디어낼 수 없는 까닭에 죽음 아니면 고독일 수 밖에 없다. 인본주의자들이 이러한 순수한 사랑에 호소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이 욕망의 세계를 암도하고 변화시켜 보려 하지만(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러한 헤마를 가진 소설들이 많자

만, 욕망의 힘은 너무나 거세고 인간이란 그 힘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소설들이 결국에 보여주는 것이란 바로 이 점인 것이다. 따라서 굳이 리얼리즘이니 뭐니 하지 않도록 소설은 리얼리스틱한 너무나 리얼리스틱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로맨스이다.

독자들이여, 필자의 사고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욕망과 즐거움사이, 그리고 알레고리와 아이러니 사이에서 찾으시기를.